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ecognition of Elderly Education on Provision for Old Age among Middle-Aged and Aged People in Korea

홍석태, 양해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Seok-Tae Hong(kyungnodang@naver.com), Hae-Sool Yang(hsyang@office.hoseo.hoseo.ac.kr)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휴(休)상태에 있거나 퇴직이후를 위한 노인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함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실증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 참여 욕구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퇴직기대 유형의 새로운 출발, 경력완성, 계속기대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노후의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퇴직기대가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보였고, 노인교육의 참여욕구는 퇴직기대가 노후의 신체적 준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왔으며, 퇴직기대가 노후의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는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교육 참여욕구, 퇴직기대, 노후준비의 인식이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 | 노인교육의 참여욕구 | 퇴직기대 | 노후준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istical data to get the government to have positive recognition of education for middle-aged and aged people about provision for old age after retirement and present a model of policy direction of realistic elderly education for middle-aged and aged people and an ideal program for middle-aged and aged people in Korea.

Such an empirical research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for effects of recognition of the need of elderly education and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elderly education on provision for retirement, the need of elderly education and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elderly education were found to have effects. Second, as for effects of the level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provision for retirement, new departure, career completion, and continuous expectation were found to have effects. Third, as for mediating effects of retirement expectation in terms of effects of recognition of the need of elderly education and the level of desire for participation, the need of elderly education has retirement expectation partly affect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preparation. As for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elderly education, expectation of retirement had completely mediating effects on physical preparation and partly mediating effects on psychological and economic preparation. Fourth, the need of elderly education, the desire for participation, retirement expectation, and recognition of provision for retirement by general properti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erms of gender, age, occupation, and educational background.

■ keyword : | Recognition of Need of Elderly Education | Desire for Participation | Provision for Retirement | Retirement Expectation |

I. 서론

2020년대의 한국사회는 65세의 노인인구가 국민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돌입하게 되면서 미래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 [10]. 다시 말해서 15년 후에는 지금의 50세가 65세의 노인반열에 합류를 하게 되고 동시에, 평균 55세를 기준으로 퇴직을 하고 휴(休)를 맞이하는 장년의 유희노동력(遊休勞動力)이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15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2008년 현재도 이미 국민인구의 20% 이상이 휴의 상태로 국가의 인적자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일정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의 값진 생을 산다면 국가는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교육을 통하여 무기력한 노인의 무(無)에서 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유(有)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50대가 미래의 우리사회에 불어 닳칠 초고령사회의 실제 노인세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55세 전후를 설문 대상자로 하였다. 그들은 질 높은 노인교육을 통하여 사회와 격리된 고독한 노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구사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혹은 젊은이에게 외면당하는 사각지대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노인 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본 연구를 하게 된 또 다른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인교육으로는 안되고 지금 부터라도 중고령자들에게는 질이 높은 대학의 문을 개방하여 그들의 자신에게 맞는 평생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문호를 개방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연구조사 방법에는 문헌연구로 기존의 연구 및 문헌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하여 미래의 노인 상을 정립하였고 실증연구로는 분석대상을 노인복지 회관을 출입하는 노인과 중고령 직장인 그리고 중년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참여욕구와 퇴직기대의 여러 상황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퇴직기대의 매개위치

에 따라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고령자 및 퇴직자를 위한 노인준비교육에 정부의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통계자료와 분석결과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중고령자에 합당한 노인 교육의 정책방향과 그들을 위한 이상적인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인구의 변화 추이와 중고령자의 노인 교육의 필요성

1.1 한국인구의 변화추이

한국에 현재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 정도였으나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5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1%에 도달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서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를 초월하여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0].

2020년에는 15.6%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70만 명에 이르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 숫자보다 많은 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금의 52세(중고령자)가 65세의 노인이 되는 2020년까지는 불과 12년 밖에 남지 않았다.

2.1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의 필요성

(1) 현재 한국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5세 여자는 82세이다. 머지않아 평균수명이 90세가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5]. 이러한 시대에 50세 전후의 중고령자는 60세 이후의 노인의 삶으로서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은 더 살아야한다. 이러한 제3의 인생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준비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2) 이들의 중고령자는 현재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할

표 1. 1960~2050년까지의 장래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내용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노인부양 지수	고령자 지수
1960		25,012	10,588(42.3)	14,258(57.0)	726(2.9)	5.1	5.9
2000		47,008	9,911(21.1)	33,702(71.7)	3,395(7.2)	10.1	34.3
2005		48,294	9,240(19.1)	34,671(71.8)	4,383(9.1)	12.6	47.4
2010		49,220	8,013(16.3)	35,852(72.8)	5,354(10.9)	14.9	66.8
2018		49,934	6,495(13.0)	36,276(72.6)	7,162(14.3)	19.0	110.3
2026		49,771	5,796(12.8)	33,618(67.5)	10,357(20.8)	30.8	178.7
2050		42,348	3,799(9.0)	22,755(53.7)	15,793(37.3)	69.4	415.7

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김오차, 2006 : 11)

것이며,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중고령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노인의 질적 변화와 함께, 저 출산 현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부양부담이 더욱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가 해결하고 모든 생활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고령자에게 질 높은 노인 준비 교육을 위해 국가의 인식과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 한국 노인교육정책

현재 우리의 노인교육정책은 평생 교육적 차원과 노인복지차원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역시 노인교육에 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평생교육법상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학교 외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있음을 볼 때 다만 노인교육이 가볍게 평생교육의 범주 속으로 들어간다고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1].

이와 같이 한국노인교육 정책의 특징을 분류한다면, 첫째, 노인교육의 실효성을 보장할 만한 구체적인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인교육을 전달할 행정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노인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노인교육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부분적으로는 노동부 등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노인교육의 목적과 교과과정

의 방향 설정, 노인교육기관 운영자와 강사의 육성과 재교육, 교재개발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노인 교육관리와 지도 등이 소홀 한 편이다. 더욱이 사회교육법과 동 시행령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교육정책은 현재 노인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13].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법과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육의 이원화는 높은 질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나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산하에 노인청에서 관장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의 일원화를 시킬 수 있다.

3. 중고령자에 필요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의 현실

3.1 은퇴준비 교육 프로그램

(1) 은퇴준비교육은 흔히 은퇴 전 교육(pre-retirement education)이라 하여 용어상의 의미로는 은퇴 전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하지만 사실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좁게는 은퇴 직전에 실시하는 은퇴준비교육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넓게는 전 생애에 걸친 인생의 설계를 돕는 교육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6].

(2)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은퇴의 의미, 노화의 의미, 변화에 대한 인식, 개인적 가치발견, 삶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은퇴 후의 계획 등 (3) 특히 퇴직자 교육 요구 내용 중 정신·신체적 건강에 대한 요구는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법,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방법, 불안

감을 극복하는 방법,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자책감을 극복하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즐기는 방법,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등이 있다. (4) 전공과 타 전공으로 노년기를 준비한다. 이러한 은퇴 준비를 위한 교육은 그 학습 대상인 장년층, 노년층의 특성 및 욕구의 다양성, 교육 주체 기관의 다양성, 또 학습 기간과 학습 내용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형태와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6].

3.2 일반 노인교육의 프로그램

노인교육 프로그램으로는 (1) 노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에 대한 내용, 즉 노인기의 특성과 노화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노인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돕는다. (2) 노인교육의 목표체계로는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 특성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우선 철학적 차원에서 노인도 존엄한 인간적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노인으로서 나이에 걸 맞는 일을 선택할 것이며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내면적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자아실현을 행동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11]. (4) 노인교육은 그 자체로서 독특성과 전문성을 지닌 독립분야로 다루어야 하며 노인교육의 출발은 노인들과 관련자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14]. (5) 특히 교육의 내용은 노인들의 경험 속에서 서로 연결 통합과 새로운 분야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노인의 생활교육과 취업 및 퇴직 준비교육[4]이 필요하며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을 위해서는 대학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3.3 한국의 현실

오늘의 한국 실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노인 교실에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노인교육시설이 아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과 노인학교 등으로

이들 기관은 교육 제정의 측면이나 교육전문성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노정(露呈)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 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은 다른 노인교육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비싼 편이어서 대부분의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4]. 결론적으로 오늘의 한국 실정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체계적인 노인교육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고, 특히 중고령자가 교육을 받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4. 선진외국의 노인교육정책 사례

다음은 선진외국의 노인교육정책 사례를 통하여 오늘의 한국 노인교육 현실을 비교하고자 한다.

4.1 미국의 노인교육정책

미국의 노인교육정책은 연방정부의 교육부, 노동부, 복지보건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중앙행정부서들이 서로 상호 협력관계 하에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 전달 체계로서 연방정부에는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주정부에는 노인복지사무국(State Unit on Aging), 지방정부에는 노인지역사무소(Area Agency on Aging) 등의 전국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하여 각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실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1) 미국의 퇴직 준비교육

미국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대학과 지역 사회, 각종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직을 맞이하기 전 중년에서 퇴직(중고령자)을 하고 난 이후의 사회적응에 이르기 까지를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스로 은퇴시기를 결정하고 은퇴 후의 삶을 재창조하는 '신노인'들을 '2Y2R 세대'(too young to retire-은퇴하기엔 너무 젊다.) 라고 부른다. 그들은 젊어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누리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baby-boomer)이 노인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 대학은 노화 센터(Aging center)나 노년학 센터(Gerontology center), 평생교육 센터(Continuing Education Institute)등을 통하여 다양한 퇴직 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4].

(2) 다양해진 노인교육

이와 같이 미국은 노인교육을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보아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노인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재취업 및 재배치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재 적용 교육 및 현대화 교육에 무상로나 보상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대학에서의 노인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야간 교육 강좌, 농촌지역의 성인교육강좌, 그리고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강좌 등은 노인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사회대학 (Community College)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시설 이용과 지역봉사,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지역 주민과의 상담, 대학교육 방송 등이며, 이런 교육활동은 지역사회 주민과의 노인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4.2 독일의 노인교육정책

독일의 노년교육은 노년을 위한 준비교육, 제 3의 시기를 위한 교육, 시니어 교육, 50세 이상을 위한 학습, 노화 교육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불리어 왔다. 독일은 모든 사람이 맞는 노인기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이며 활기 찬 인생주기로 만들으로써 ‘새로운 노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하였다[13].

특히, 노년교육은 노인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력 개발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 내용도 매우 포괄적 이어서 차세대에게 문화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민주시민으로써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민을 교육하고,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교육으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노년기를 특화한 교육은 1970년대의 정책수립기를 지나 1980년대에는 노년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1990년대에는 노인이 갖고 있는 생산성과 창의성의 발현을 통한 자율적인 노년기를 만들며 지속적인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1) 대학에서 실시되는 노인대학

독일의 대학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비가 전혀 없다는 특성이 노년의 평생학습 발전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규과목을 청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이는 젊은 대학 학생들에게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세대 또는 학문적인 학습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 사회화를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대학에서는 노년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노인대학(Senioren-Universitaet)이라 명명하며 증가하는 노인의 학문적인 학습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노년교육은 대학교 마다 특성화되어 운영되며 교수법도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4.3 프랑스의 노인교육정책

프랑스에서는 ‘노년(Old Age)’이라는 단어 대신 ‘제 3의 인생 (The Third Age)’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노년 혹은 노인이란 단어가 노년층의 역할을 축소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3]. 프랑스는 각 지역에 다양한 ‘퇴직준비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준비단체들의 회원은 각계각층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여가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아동기와 사춘기, 직업에 의한 활동기, 직업에서 퇴직하는 시기,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시기 등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생의 마지막 단계인 의존시기의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세 번째 단계인 퇴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3의 인생’을 강조한다[13]. 지역 도시마

다 전문직 은퇴자들로 구성된 은퇴자협회전국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퇴직 전 준비교육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퇴직 준비단체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준비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퇴자들의 법적권리와 의무, 사회보장제도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 교육, 노년학 관련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클럽의 운영, 재취업알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은퇴 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상기한 제3세대 대학(U3A)의 교육이다.

4.4 일본의 노인교육정책

(1) 노인지도자 양성 교육(고령자 인재활용 사업)

고령자 인재활용 사업(1978~83)이란 노인들의 잉여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종래의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학습을 통하여 노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인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노년교육이 단순한 지식과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도록 그동안 연마한 학습의 성과를 사회교육현장에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에 지도자 양성강좌를 개설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행하여 인재뱅크에 등록하여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도자로 파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장수학원개설 및 장수사회개발센터

다양한 노인층의 고차원적인 학습욕구에 체계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문부성은 1989년부터 장수학원을 개설하였다. 장수학원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의 추진센터, 대학과 전문대학교, 민간교육사업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노인에게 광역적이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를 지역 활동의 지도자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통신제를 운영하고 학습상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원을 배치하였다. 장수학원에서 2년 이상을 학습하고 일정 학점(30학점 이상)을 습득하면 수료 증서를 수여하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퇴직 근로자를 위한 인생설계 교육

퇴직근로자와 노인이 전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고령층 및 퇴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교육 강좌는 '활력이 넘치는 실용 시니어 학'이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미야기(宮城) 재단이 주체가 되어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 까지 총7회를 개최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교양과 시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와 강사를 초빙하여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13].

III. 연구 설계

1. 자료의 수집과 분류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노인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과 중 고령 직장인들과 중년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2007년 2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만에 걸쳐서 집중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20부의 설문을 입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15부를 제외한 305부의 설문을 가지고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첫째,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교육 필요성과 참여 욕구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퇴직기대 수준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교육 필요성의 인식과 참여욕구 수준이 노

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퇴직기대 수준은 매개 역할을 할 것임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 퇴직 기대 수준, 노후 준비 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임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설 1 :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참여 욕구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둘째, 가설 2 : 퇴직기대의 수준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셋째, 가설 3 :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참여의 욕구수준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퇴직기대 수준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넷째, 가설 4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 필요성의 인식과 노인교육참여욕구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다섯째, 가설 5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퇴직 기대의 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여섯째, 가설 6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 준비의 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노후 준비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문조(2006)가 '개인적 심리적 직업관련 변인이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사용한 노후준비 척도를 인용하였다. 노후준비 척도는 2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의 3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3.2 노인교육 필요성과 교육 참여욕구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노인교육 참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영희(2005)가 '중년층의 노후생활의식과 노후 사회교육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을 사용하였다.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2문항, 노인교육참여 욕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3 퇴직기대

퇴직기대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서 이정의(2002)가 '교사 퇴직기대 유형, 결정요인, 퇴직준비교육과의 관련성'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 경력의 완성, 계속 기대의 5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3.4 연구의 개념적 모형

연구모형은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노인교육참여욕구가 퇴직기대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욕구이며, 종속변수는 노후준비로서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를 포함하였다. 퇴직기대는 매개변수로서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 경력의 완성, 계속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욕구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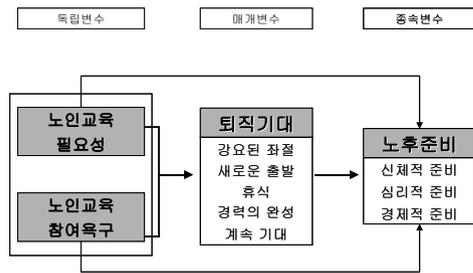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42.6%, 여자가 57.4%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61-64세가 21.6%, 45-50세가 25.2%, 51-55세가

23.3%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 57.7%, 고졸이 26.6%, 중졸이 8.9%로 나타났고 월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하가 58.4%, 400만원 이하가 30.2%, 200만원 이하가 6.2%로 나타났으며 현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이 30.5%, 자영업이 29.5%, 가정주부가 22.0%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이 80.0%, 사별이 17.4%, 미혼이 2.6%로 나타났다. 주거상태에 따라서는 자가 60.3%, 전세가 23.0%, 월세가 15.4%로 나타났고 자녀수에 따라서는 2명이 41.0%, 1명이 25.6%, 3명 이상이 25.2%로 나타났으며 걱정거리에 따라서는 자녀문제가 36.7%, 건강문제가 27.5%, 주택문제가 23.0%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30	42.6
	여	175	57.4
연령	45-50세	77	25.2
	51-55세	71	23.3
	56-60세	66	21.6
	61-64세	91	29.8
학력	중졸	27	8.9
	고졸	81	26.6
	대졸	176	57.7
월소득	대학원이상	21	6.9
	200만원 이하	19	6.2
	300만원 이하	178	58.4
	400만원 이하	92	30.2
현직업	400만원 이상	16	5.2
	회사원	93	30.5
	전문직	28	9.2
	자영업	90	29.5
	가정주부	67	22.0
	공무원	9	3.0
혼인상태	기타	18	5.9
	미혼	8	2.6
	기혼	244	80.0
주거상태	사별	53	17.4
	자가	184	60.3
	전세	70	23.0
	월세	47	15.4
자녀수	기타	4	1.3
	1명	78	25.6
	2명	125	41.0
	3명	77	25.2
	4명이상	8	2.6
걱정거리	없다	17	5.6
	건강문제	84	27.5
	주택문제	70	23.0
	고독, 외로움	30	9.8
	자녀문제	112	36.7

	없다	9	3.0
합계		305	100.0

2. 신뢰성 분석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가능하고 독자적인 측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의 측정방법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동일한 대상에 시간을 달리하여 적용결과를 비교하는 검중-재검중, 항목분할 측정치의 상관도, 내적일관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신뢰성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변수	하위 변수	문항수	Cronbach의 알파
I. 퇴직 기대 (퇴직이후 삶에 대한 기대)	강요된 좌절	11	.717
	새로운 출발	7	.649
	휴식	5	.697
	경력 완성	4	.738
	계속 기대	3	.635
II. 노후준비	신체적 준비	6	.806
	심리적 준비	6	.662
	경제적 준비	9	.738
III. 노인교육 필요성 과 참여욕구	노인교육의 필요성	1	.646
	노인교육의 참여성	5	.826

3.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 욕구 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교육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 참여 욕구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36.8%를 설명하며 노인교육필요성($\beta=.379, p<.001$), 노인교육참여욕구($\beta=.300, 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교육필요성과 노인교육참여욕구가 높아지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영향력이 큰 순위는 노인교육필요성, 노인교육참여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 참여 욕구가 은퇴 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유의도
(상수)	2.100	.087		24.195	.000
노인교육필요성	.180	.027	.379	6.665***	.000
노인교육참여욕구	.158	.030	.300	5.271***	.000

주) 사례수 =305, R-square=.368, F=88.099, P=.000 ***p<.001

4. 퇴직기대 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퇴직기대 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42.1%를 설명하며 새로운 출발($\beta = .230, p < .001$), 경력완성($\beta = .316, p < .001$), 계속기대($\beta = .218, p < .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출발이 높아지고 경력완성이 커지며 계속기대가 높아지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영향력이 큰 순위는 경력완성, 새로운 출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퇴직기대 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유의도
(상수)	1.490	.154		9.666	.000
강요원좌절	-.034	.048	-.036	-7.12	.477
새로운출발	.194	.052	.230	3.753***	.000
휴식	.046	.035	.070	1.327	.185
경력완성	.182	.030	.316	6.009***	.000
계속기대	.148	.039	.218	3.809***	.000

주) 사례수 =305, R-square=.421, F=43,401 P=.000 ***p<.001

5.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욕구의 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퇴직기대 수준의 매개 역할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욕구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퇴직기대의 매개효과 정도를 검증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퇴직기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 = .184, p < .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신체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36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기대를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신체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Full 모형에서 퇴직기대는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 = .495,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신체적 준비에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도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교육참여욕구에 있어서는 1단계에서 유의한 독립변수($\beta = .145, p < .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신체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노인교육의 참여욕구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71,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기대를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신체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Full 모형에서 퇴직기대는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 = .495,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에게 노인교육의 욕구는 신체적 준비에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 노인교육의 참여욕구는 각각 부분매개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 필요성 인식차이

6.1 연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의 차이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교육의

표 6.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욕구의 수준이 퇴직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퇴직기대의 매개효과

종속 변수	구분	독립변수 노인교육필요성	매개조건충족				종속 변수	구분	독립변수 노인교육참여욕구	매개조건충족			
			1	2	3	4				1	2	3	4
신체적 준비	1단계(β_1)	.184***(.000)	○				신체적 준비	1단계(β_1)	.145***(.000)	○			
	2단계(β_2)	.366***(.000)		○				2단계(β_2)	.171***(.007)		○		
	3단계(β_3 :독립)	.180**(.003)			○			3단계(β_3 :독립)	.040(.488)			×	
	3단계(β_4 :매개)	.495***(.000)				○		3단계(β_4 :매개)	.495***(.000)				○
심리적 준비	1단계(β_1)	.376***(.000)	○				심리적 준비	1단계(β_1)	.265***(.000)	○			
	2단계(β_2)	.267***(.000)		○				2단계(β_2)	.214***(.001)		○		
	3단계(β_3 :독립)	.194**(.005)			○			3단계(β_3 :독립)	.163*(.014)			○	
	3단계(β_4 :매개)	.194**(.002)				○		3단계(β_4 :매개)	.194**(.002)				○
경제적 준비	1단계(β_1)	.138*(.005)	○				경제적 준비	1단계(β_1)	.201***(.000)	○			
	2단계(β_2)	.209***(.001)		○				2단계(β_2)	.285***(.000)		○		
	3단계(β_3 :독립)	.133*(.049)			○			3단계(β_3 :독립)	.231***(.000)			○	
	3단계(β_4 :매개)	.202***(.001)				○		3단계(β_4 :매개)	.202***(.001)				○

*p<.05, **p<.01, ***p<.001

필요성에 따라서는 61-64세가 3.4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51-55세는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고졸이 3.5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졸은 2.78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그 외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6.2 연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교육의 참여욕구 인식차이

성별 인식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교육참여욕구는 남자가 3.32점, 여자가 3.10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즉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노인교육참여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교육참여욕구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4.07점, 가정주부가 3.3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자영업이 3.06점, 회사원이 3.15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주거상태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교육참여욕구에 따라서는 기타가 3.50점, 전세가 3.4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그 외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

6.3 연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퇴직기대의 인식차이

연령에 대해서 퇴직기대는 45-50세가 3.3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51-55세는 2.99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3.57점, 회사원이 3.2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기타 3.01점, 가정주부 3.11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 외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0].

6.4 연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인식의 차이

연령에 대해서 노후준비에 따라서는 56-60세가 3.3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51-55세가 3.07점으로 낮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 외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1].

표 8.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성별	남	130	3.32	1.133	-.401	.689
	여	175	3.37	.891		
연령	45-50세	77	3.29	1.014	4.137	.007
	51-55세	71	3.03	1.048		
	56-60세	66	3.55	.956		
	61-64세	91	3.49	.926		
학력	중졸	27	2.78	1.163	5.200	.002
	고졸	81	3.56	.880		
	대졸	176	3.38	1.015		
	대학원이상	21	3.00	.758		
직업	회사원	93	3.32	1.031	1.430	.213
	전문직	28	3.38	.857		
	자영업	90	3.29	.965		
	가정주부	67	3.51	1.013		
	공무원	9	3.72	1.176		
혼인 상태	미혼	8	3.00	.964	1.262	.285
	기혼	244	3.32	.957		
	사별	53	3.51	1.179		
	기타	4	2.75	.957		
주거 상태	자가	184	3.31	1.072	1.735	.160
	전세	70	3.55	.881		
	월세	47	3.23	.833		
	기타	4	2.75	.957		

*p<.05, **p<.01, ***p<.001

표 10. 퇴직기대의 인식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성별	남	130	3.19	.568	.440	.660
	여	175	3.17	.423		
연령	45-50세	77	3.30	.526	5.595	.001
	51-55세	71	2.99	.488		
	56-60세	66	3.24	.488		
	61-64세	91	3.18	.419		
학력	중졸	27	3.21	.594	2.006	.113
	고졸	81	3.29	.491		
	대졸	176	3.13	.478		
	대학원이상	21	3.13	.382		
직업	회사원	93	3.26	.539	2.606	.025
	전문직	28	3.21	.463		
	자영업	90	3.13	.474		
	가정주부	67	3.11	.367		
	공무원	9	3.57	.473		
혼인 상태	미혼	8	2.92	.250	1.194	.305
	기혼	244	3.18	.487		
	사별	53	3.20	.523		
	기타	4	3.01	.622		
주거 상태	자가	184	3.14	.485	2.506	.059
	전세	70	3.28	.481		
	월세	47	3.13	.505		
	기타	4	3.57	.340		

*p<.05, **p<.01, ***p<.001

표 9. 노인교육의 참여욕구 인식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성별	남	130	3.32	1.059	2.058	.040
	여	175	3.10	.748		
연령	45-50세	77	3.10	1.116	1.046	.372
	51-55세	71	3.11	.932		
	56-60세	66	3.27	.725		
	61-64세	91	3.29	.769		
학력	중졸	27	2.96	1.180	1.521	.209
	고졸	81	3.27	.805		
	대졸	176	3.23	.893		
	대학원이상	21	2.93	.842		
직업	회사원	93	3.15	1.071	2.413	.036
	전문직	28	3.26	.809		
	자영업	90	3.06	.878		
	가정주부	67	3.30	.623		
	공무원	9	4.07	.825		
혼인 상태	미혼	8	2.93	.725	1.660	.192
	기혼	244	3.16	.850		
	사별	53	3.38	1.105		
	기타	4	3.18	.873		
주거 상태	자가	184	3.17	.933	3.028	.030
	전세	70	3.42	.835		
	월세	47	2.93	.810		
	기타	4	3.50	.383		

*p<.05, **p<.01, ***p<.001

표 11. 노후준비의 인식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성별	남	130	3.17	.504	-1.285	.200
	여	175	3.24	.450		
연령	45-50세	77	3.19	.468	3.103	*
	51-55세	71	3.07	.468		
	56-60세	66	3.30	.468		
	61-64세	91	3.26	.468		
학력	중졸	27	3.04	.534	1.992	.115
	고졸	81	3.29	.470		
	대졸	176	3.20	.469		
	대학원이상	21	3.18	.417		
직업	회사원	93	3.20	.471	2.057	.071
	전문직	28	3.23	.471		
	자영업	90	3.13	.452		
	가정주부	67	3.29	.475		
	공무원	9	3.57	.535		
혼인 상태	미혼	8	3.07	.430	.368	.692
	기혼	244	3.21	.468		
	사별	53	3.23	.515		
	기타	4	3.12	.507		
주거 상태	자가	184	3.20	.481	.239	.869
	전세	70	3.25	.432		
	월세	47	3.18	.523		
	기타	4	3.24	.374		

*p<.05, **p<.01, ***p<.001

V. 결론과 제언

1. 결론

중고령자를 위한 노인준비교육이 그들의 이상적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본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노인교육의 참여욕구가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퇴직기대의 새로운 출발의 생각과, 경력완성을 하고자하는 마음 그리고 계속기대 등은 노후준비에 동기부여와 매개효과로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퇴직기대의 새로운 출발, 경력의 완성 그리고 계속기대는 노후준비를 위해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퇴직기대의 강요된 좌절과 새로운 출발의 욕구, 휴식, 그리고 경력의 완성의 기대가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노인교육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노후의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노인교육의 참여욕구 그리고 퇴직기대와 노후준비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의미하는 시사점은 현재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인교육에 대해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퇴직기대와 노후준비라는 관계차이를 정리하였다는 점이 큰 의미라 하겠다. 또한, 향후 예비노인인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현재 노년교육의 부재와 정책상 제고의 효과를 가져 올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증가하는 노인의 문제를 위한 노년교육의 활성화와 중고령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담행정부처의 신설과 이들의 재정적 지원마련이 필요하고, 노년교육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은 대상이 늙고 병들어 할 일이 없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기술의 경험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그들이 능동적인 주체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노년교육의 프로그램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 제언

첫째, 기업은 중고령층이 다양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자는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상자들의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퇴직준비이자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욕구 수준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됨에 있어서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문화취미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중년층이 퇴직 전에 노후생활을 계획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교육의 일환인 퇴직준비교육을 의무화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시사점은 대상자들을 향후 예비노인인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현재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인교육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퇴직기대와 노후준비라는 관계차이를 정리하였다는 점 또한 현재 노년교육의 부재와 정책상 제고효과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큰 의미다. 더욱이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행정부처의 신설(예:노인청)과 이들의 재정적 지원마련이 시급하고, 노년교육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도로 '인력뱅크'를 활용하고 그들이 능동적인 주체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노년교육의 프로그램을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퇴직기대를 매개변수를 노후준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퇴직기대와 노후준비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객관적인 도구로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가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져 이들을 비교 연구하여 시사점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집단의 의견 수렴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더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교육인적자원부, 노인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01. 12.

[2] 김길자, *평생교육관점에서의 노인교육프로그램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3] 김오차, *한국의 노인교육 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11).

[4] 김종길, *고령사회에서의 지방정부의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5] 이시형, “에이징 파워”, 2007

[6] 설은주,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예영, 2005.

[7] 박재간, *21세기 노인복지 정책 방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8] 박재간, 홍미령, *노인교육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2000.

[9] 백은순, *성인기 여가의 특성과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0]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11] 허춘광, ‘한국노인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7

[12] 홍문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입법 공청회-바람직한 노인정책 방안”, 2005.

[13] 한정란, *세계의 노인교육*, 학지사, 2006.

[14]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6.

[15] R. C. Atchley,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Belmont. C. A. : Wadsworth Publishing Co., 1985.

[16] P .B. Baltes and M. M. Balter,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저 자 소 개

홍 석 태(Seok-Tae Hong)

정회원



- 1985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2007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관심분야> : 노인교육

양 해 술(Hae-Sool Yang)

정회원



- 1991년 : 일본 오사카대학교정보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공학박사)
- 2001년 ~ 현재 :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 1999년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정보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공학(특히, S/W 품질보증과 품질평가, 품질감리 및 컨설팅, OOA/OOD/OOP, SI), S/W 프로젝트관리,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 품질평가